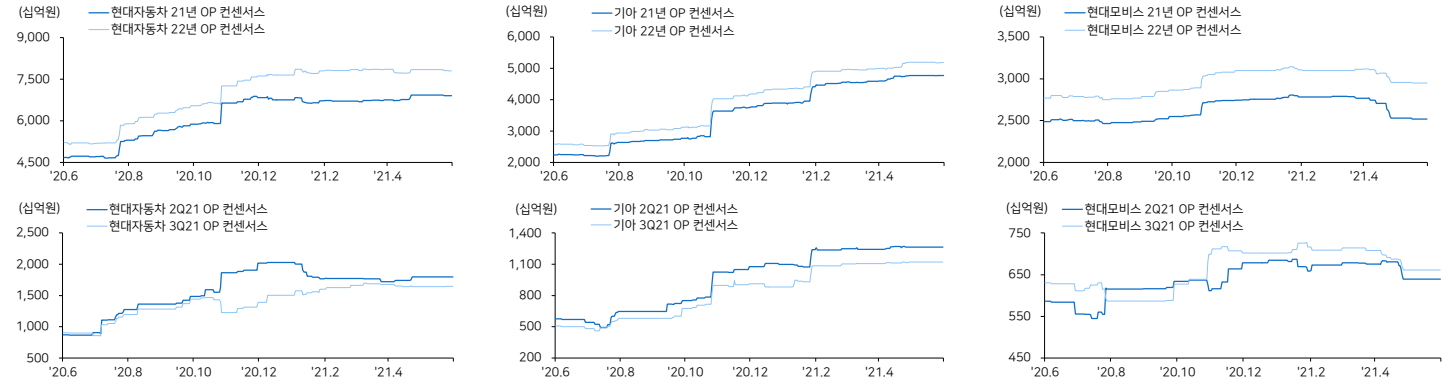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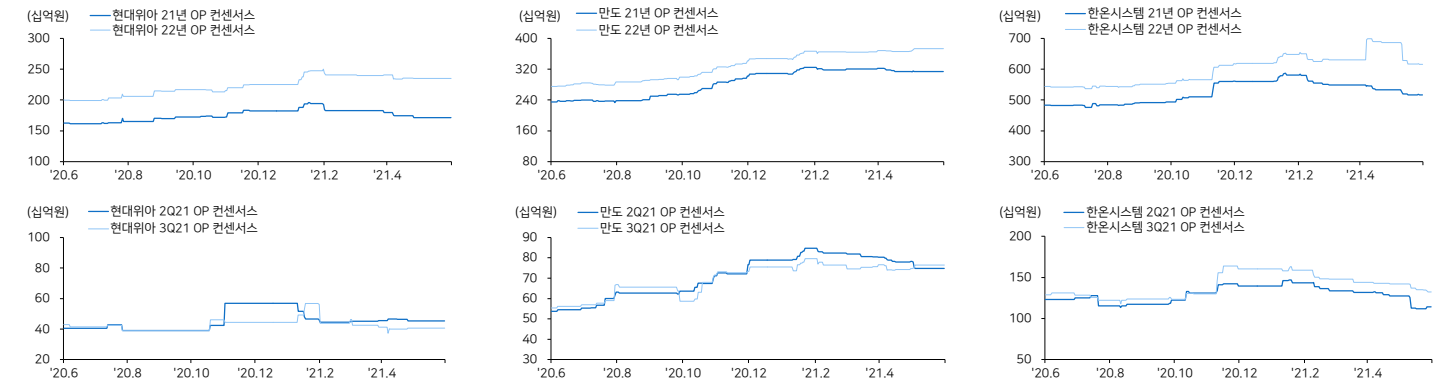


## 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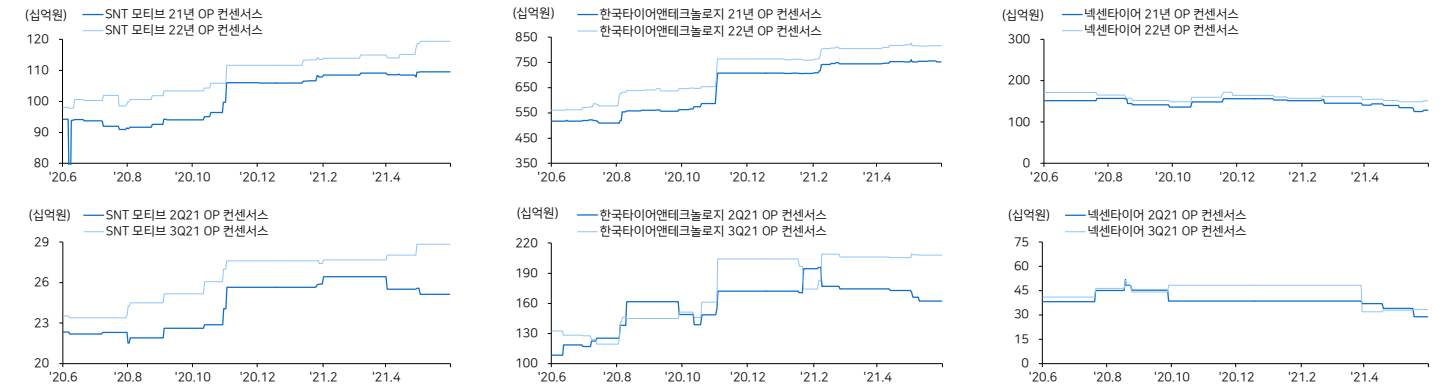
### 현대차 / 기아차 / 현대모비스



### 현대위아 / 만도 / 한은시스템



### S&T모티브 / 한국타이어 / 넥센타이어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 국내외 주요 뉴스

### 현대차 합작 모셔널, 무인차에 애플리케이션 프세서 탑재 (THE GURU)

모셔널은 자사 무인자동차에 애플리케이션 AI 기반 차량용 카메라 SoC 'CV플로우' 시리즈를 적용함. 내년부터 현대차의 전기차 아이오닉5를 차세대 로보택시 플랫폼으로 활용할 예정이며, 아이오닉5에는 모셔널의 자율주행 기능이 탑재될 예정.  
<https://bit.ly/34QGUEm>

### 기아, 美 코로나 19 빚장 풀자 월간 판매량 신기록...전기차 점유율 10% (오토헤럴드)

영국이 코로나 19 빚장을 풀 첫 달, 기아가 8,207대를 판매하며 월간 최대 판매 기록을 경신하고 시장 점유율을 크게 끌어올림. 특히 전기차 시장 점유율은 9.7%를 기록했으며, 영국 친환경차 시장 성장과 동반 성장세 지속될 전망.  
<https://bit.ly/3z6CQH4>

###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 작년보다 3배 증가...연말까지 500만대 전망 (전자신문)

4월 YTD 전기차(BEV + PHEV) 판매량이 YoY 3배 증가한 151만대로 나타남. 유럽 친환경차 규제와 미국 바이든 정권 집권으로 트럼프 때 중단했던 친환경차 보급정책을 다시 강화 중. 이 같은 추세를 연 연말까지 500만대 돌파도 가능할 전망.  
<https://bit.ly/3uYdZJ2>

### 미 리튬 개발에 29조 투자...역대 최대 규모 (전자신문)

토요타, نيسان, 혼다 등 6대 일본 완성차 업체의 2022FY 연구개발 예산은 YoY 7% 증가한 29.3조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가 배정됨. '20년기준 일본 완성차 업체의 전기차 점유율은 5% 수준에 불과했으나, 글로벌 환경규제에 맞춰 많은 예산을 배정함.  
<https://bit.ly/3z60Hh4>

### 그랜저, 르노삼성 인기에 5년 연속 국내판매 1위 코앞 (조선일보)

그랜저는 지난 5월 약 1만500대가 계약되어, 올해 1~4월 월평균 계약 대수(9000대) 대비 17% 상승함. 신형 그랜저는 7600대, 그랜저 '르노삼성' 모델은 4000대로, 연식변경 모델의 인기로 5년 연속 국내판매 1위 달성 가능성이 높아짐.  
<https://bit.ly/3z2dZLD>

### 쏘나타 생산라인서 아이오닉6 만들까...전기차 라인 전환 '축각' (연합뉴스)

현대차가 쏘나타와 그랜저를 생산하는 아산공장에서 내년 공개될 '아이오닉6'를 생산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판매가 부진한 내연기관차 생산라인을 전기차 생산라인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옴.  
<https://bit.ly/3zU1Whg>

### 렌터카 'bye 기름차, buy 전기차' (한국경제)

주요 렌터카 업체들이 전기차 비중을 늘리는 중. 전기차가 호기심을 느끼는 소비자들을 공략하기 위해서, 그리고 ESG 경영 강화를 위한 것으로 해석됨. 차량 20만대를 보유한 SK렌터카는 '30년까지 전량 친환경차 전환을 발표할 바 있음.  
<https://bit.ly/3vYyBqY>

### 'Elon: Tesla FSD V.9 will be 'Pure Vision,' coming within next three weeks (Teslarati)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에서 FSD Beta의 다음 SW 릴리스가 최근 테슬라가 채택한 'Pure Vision' 방식 기반임을 밝히고, 2~3주 후 새로운 버전의 FSD가 릴리스될 것이라고 언급함.  
<https://bit.ly/3vYzXx3>

##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 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게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